

제2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김수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9월 17일(금) 오후 13시30분부터 18시 고려대학교에서 제2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부구욱 총장(영산대학교, 대교협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기수 대교협 회장의 축사, 박범훈 중앙대학교 총장과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5개의 주제발표와 다양한 입장에서의 토론으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포럼에서 이기수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선발의 공정성, 충실한 교육과정 구비, 충분한 재정지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과제를 언급했다.

포럼 1주제 발표는 ‘변호사의 직역확대 및 범조인접지역의 통합’의 주제로 장재욱 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교협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자문교수)이 하였다. 프랑스 등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와 우리 나라에서 이미 변호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법률상담사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변호사를 공공적 측면보다는 비즈니스적 측면으로 보고 기업법률가나 변리사 등에게 넓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2주제는 정용상 학장(동국대 법대)이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을 발표하였다. 정용상 학장은 바람직한 로스쿨의 정착 과제로 로스쿨의 과도한 총정원 통제를 푸는 것을 강조하였다. “합리적 로스쿨 정원의 증원”은 로스쿨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이며, 사법개혁의 대전제라고 역설하였다. 더불어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정한 선정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두얼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변호사 진입규제 및 동업규제의 타당성’의 3주제가 이어졌다. 김두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자격사제도를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해 온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자격사제도가 작동하는 부작용이 야기해 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법률 직역들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 혹은 축소, 최소자격으로 선별하는 자격사 시험제도 운영,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감독 방식의 자격사 관리, 자격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제시하였다.

포럼 4주제는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의 특성화'를 주제로 이철환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로, 이철환 교수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실무능력 평가는 모의시험을 통하여 출제방식과 수준을 공시하고, 공청회를 거쳐 적합한 내용과 방식의 실무능력 평가 기준이 제시되는 방식의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로스쿨 특성화 교육이 이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특성화 과목이수를 변호사시험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 주제는 안경봉 학장(국민대 법대, 대교협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자문교수)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및 법률가일원화방안' 발표로 진행되었다. 안경봉 학장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개선 방안과 법률가 일원화 방안으로 발표하였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개선 방안으로는 로스쿨 장학금제도 확충, 로스쿨 총정원제 폐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입학전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자 비율 확대, 법학교육인증제 도입·실시를 제시하였다. 법률가 일원화 방안으로 법학전임교수들에게 법관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주장되었다.

이 날 포럼에서 5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조민행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경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 권성연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차순길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각각 맡아 진행되었다.

이번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주제로 개최된 대학정책포럼은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과제로서 로스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로스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